



2022. 5. 11 (수)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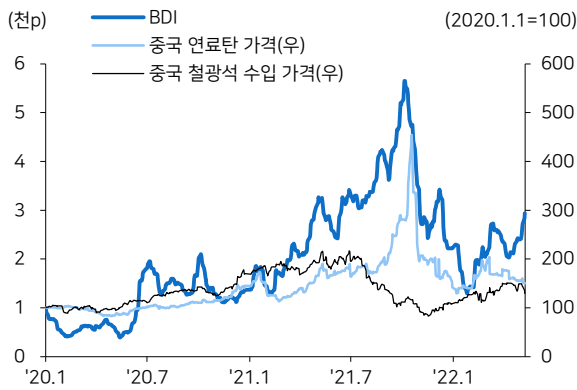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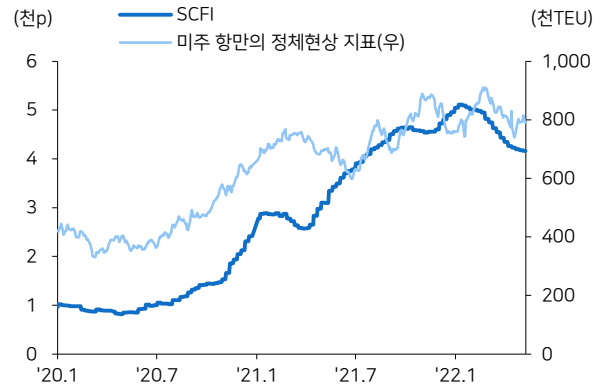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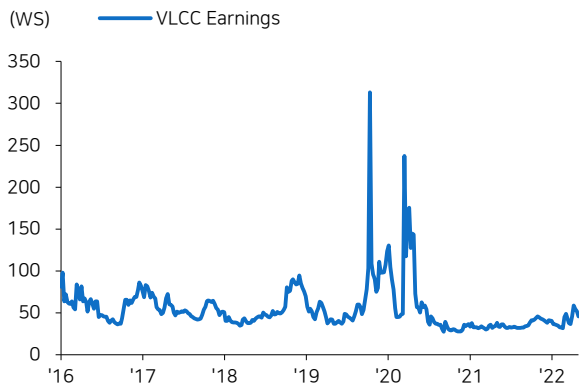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39p(+10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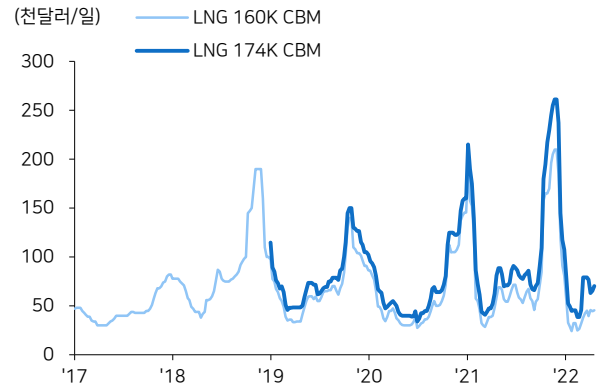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63.7(-13.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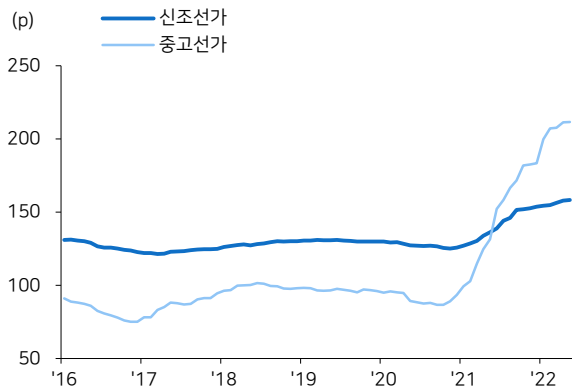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1.5p(-4.3p WoW)



LNG Spot 운임 48.5p(+2.8p WoW) 76.8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3p(+0.5p WoW) 211.4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61.1p(+1.6p DoD) 95.6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주유소 10곳 중 4곳, 경유가 더 비싸...택배비 오를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바짝 추격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됨. 경유는 주로 대형 화물차·택배차량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지난달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는 리터당 181원이었던 반면 5월 10일 기준 3.3원 차이남. (머니투데이)

### Japan confirms ban on Russian oil imports, but sticks with Sakhalin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지만 사할린 1, 2의 원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유지할 것으로 보도됨. G7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에너지 수입국이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G7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명함. 한편, 일본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는 4%로, 현재 G7 국가 중 유일하게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국가임. (Tradewinds)

### EU집행위원장, 헝가리 총리와 '러시아 석유 금수' 합의 실패

EU와 헝가리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수 조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성과없이 끝났다고 보도됨. EU집행위는 지난 4일 대러 6차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원유는 6개월 내에, 석유 제품은 2022년내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2024년 말까지, 체코는 그해 6월까지 유예토록 예외를 둬.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제재안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됨. (뉴시스)

### US puts shipping in Russia sanctions crosshairs as EU gets cold feet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러시아 운수 제재 관련 이견이 발생했다고 보도됨. 미국은 러시아 국적 선박을 블랙리스트(SDN,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리는 등 제재를 강화했지만, 유럽연합은 그리스, 몰타 등 회원국의 반대로 제재를 취소함. (Tradewinds)

### UAE and Greece ink deal worth \$4.2 billion focusing on gas, clean energy

UAE와 그리스가 총 42억달러 규모 천연가스 공급을 포함한 투자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LNG 수송 및 해상풍력시설 구축 등이 포함됨. (Upstream)

### '복적복적' 북미항로 선복량 575만TEU...1년새 24% 급증

컨테이너선사들이 지난 1년동안 북미항로에서 선복을 20% 이상 늘렸다고 보도됨.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4월 현재 아시아-북미항로 선복량은 575만TEU를 기록, 전년대비 24% 증가한 수준임. 대형선사뿐만 아니라 중소선사들이 선박을 투입한 영향으로 설명함. (코리아슈핑가제트)